

수능시행 연기 후속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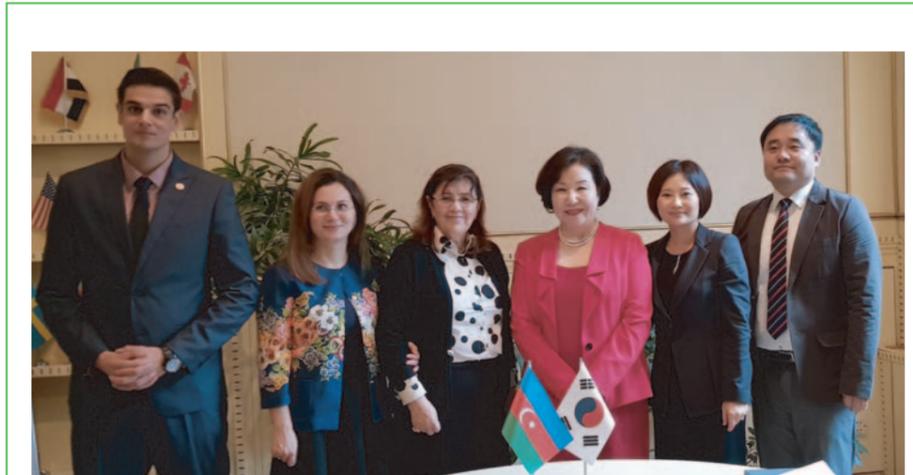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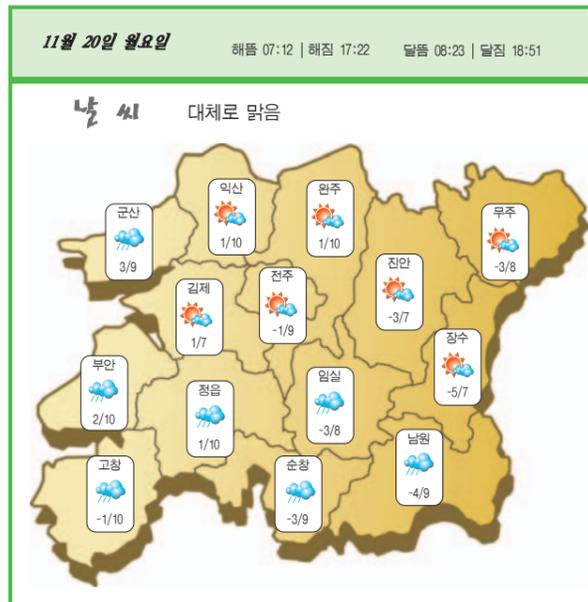
도교육청, 23일로 일정변경... 성적 통지도 미뤄져 시험장 안전점검·시험지 보안강화 등 관리 철저

전북도교육청이 11월 23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운영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학생안전관리팀·시설과·수능 운영팀 합동으로 82개 수능 시험장 안전점검 실시, 방송점검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험지구교육청 담당자 2명·경찰 2명(1일 3교대 1일 총 6명 배치)·중앙협력관 2명 등 6명 배치 등 경비를 강화하고 본청 및 6개 시험지구교육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수험생들이 흔들림 없이 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수험생들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EBS 수능 인터넷 강의와 무료교재 활용 안내해 학교별 밀도 있는 마무리 학습 지도를 당부하고 학원생 및 졸업생에 대해 22일 예비소집 참여 등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전날인 22일에는 지진대비 대응매뉴얼을 포함한 수험생 예비소집 및 감독관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실

배치 위치를 변경하고 시험장 조성 물품 추가 지원(책상 스티커 재인쇄 및 벽면 부착 물품 등)하기로 했다. 한편 수능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주요 일정을 변경하는데 22일에 치러질 예정이던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는 29일로 연기하고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6일에서 12월 12일로 연기하며 전북교육청 주관 정시입시전략 학부모 설명회도 12월 16일에서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가 코카서스 3국의 주요대학들과 MOU를 체결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 '어깨동무'

전북대 - 코카서스 3국의 주요대학 MOU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코카서스 3국의 주요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선도 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을 방문하고 있는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아제르바이잔 최고 명문대학인 바쿠 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육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 그리고 아르메니아 예레반 국립언어사화대학 등과 MOU를 체결했다. 이 대학들은 지난해 조지아 트빌리시 자유대학에서 개최한 제1회 코카서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

한 주요 대학들이다. 전북대는 그동안 이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고 실제 교류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조지아 트빌리시 자유대학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이들 대학을 방문한 대표단은 전북지역의 교유의 한문화와 연계한 인문학 교육 및 공학, 농학 등 전북대가 자랑하는 다양한 학문분야를 소개하였고 코카서스지역대학 등은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지정학적 특성의 여러 학문 분야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들 대학들과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학생 교환프로그램을

학술교류협정 체결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바쿠국립대학은 교환교수프로그램 및 한국어 센터 등의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트빌리시 자유대학은 현재 시행중인 학생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레반사화 언어대학은 미교류 지역이었던 만큼 한국어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코카서스 지역은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동서화합과 교류의 장이었으며 이들 국가로의 진출은 우리대학의 모범생을 넘어서 모험생을 키우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저개발 국가의 우수 유학생을 발굴하여 한국 유학으로 유치하여 농생 명·한문화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4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3 번째 중앙아시아지역의 신규국가를 발굴하여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수능 연기에 전북대도 입학전형 일정 변경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지난 15일 포항의 지진 여파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모든 입학전형 일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23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수시모집 면접을 수능 이후인 30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2월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도 12월 22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면접은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하루 동안 오전 조와 오후 조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를 위한 조 편성 및 자세한 내용은 오는 24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수능시험 이후인 30일 2단계 면접을 거쳐 12월 22일 최초 합격자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대는 정시모집 원서접수도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정시모집이 실시되며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의 경우 일 반전형은 2018년 1월 19일, 일반(예체능)과 특별전형은 2월 1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는 등 실기고사와 등록금 납부 등도 1주일 연기된다. /정해은 기자

교육정책 생각 나누기... 소통데이 개최

김승환 교육감 - 공무원



화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 행사는 지방공무원에게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전북교육정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생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사진)과 일반직 지방공무원간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어 전북 교육정책의 가치를 공감하고자 '지방공무원 소통공감데이'를 지난 17일에 전주 제이에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지역별 지방공무원 구성비율에 따라 배정된 지방공무원 중 참여를 신청한 45명(8개 직책)과 지방공무원 노조대표 등 50명이 모여 현정부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특강,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감과 일반직 지방공무원간의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교육감과 대

생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정책과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감과 일선 현장의 하위공무원까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목표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서 "향후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과학·수학 어울 한마당 성료

과학과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2017 과학, 수학 어울 한마당'이 지난 17~18일 전북도과학교육원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도내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등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과학과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탐구활동이 펼쳐졌다. 첫날인 17일 오후 3시 개회식에 이어 국립광주과학관의 기획공연 '찾아가는 필사아이스 콘서트'가 펼쳐

졌다. 특별전시관과 전시체험관에서는 전문사진 전시회와 과학소통마당 등이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둘째날인 18일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야외 부스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전문사진 전시회와 과학소통마당도 계속 진행됐다. 같은 시각 과학교육원 301, 302호에서는 과학대회가 열린다. 초등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가족부 등 총 88팀이 참가했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 일곱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로주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